Invest chosun
media introduction

1 인베스트조선은

조선일보 미디어그룹의 경제 및 산업분석, 자본시장 미디어입니다.

해외 유수의 언론들은 매크로 이코노믹스 뿐만 아니라 주요 캐피털 마켓의 움직임과 동향까지 주목하는 심도 있고 전문성 높은 매체들을 마련해 차별화된 기사를 제공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의 IFR은 주간지와 온라인 웹사이트 기사를 통해 글로벌 마켓의 공고한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투빅투페일(Too Big to fail)의 저자 앤드류 로스 소킨(Andrew Ross Sorkin)이 설립한 뉴욕타임스(NYT) 산하 딜북(DealBook)은 자본 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의 공통점은 '정확성'과 '공신력', 그리고 '분석의 깊이'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인베스트조선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조선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산업의 주요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합니다.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채권발행, 주가 움직임 등을 다채롭게 분석하여 심도 있는 투자정보와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현황

· 성격	경제전반 및 산업분석, 증권금융
· 설립일	2011년 6월 2일
· 대표이사	방정오
· 홈페이지 주소	www.investchosun.com
· 위치	우) 04515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52 조선미디어 광화문센터 7층
· 연락처	02-3789-9711, 9710 investid@chosun.com

3 주요 성격

산업과 기업활동 분석	기업 구조조정 및 신사업 진출	금융회사의 역할과 주요 활동	투자시장의 움직임 분석과 전망

4 서비스

(1) 홈페이지 뉴스 서비스

자사 홈페이지 (www.investchosun.com)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 기사를 매일아침 주요 섹션별로 나눠 제공합니다.
두고두고 읽을 만한 기사는 Editor's Choice를 통해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포그래픽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베스트조선'을 구축,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트 마켓)과 아이폰 앱스토어 (아이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라인 · 카카오톡과의 연계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주요 기사와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조선일보 경제부문 통합 애플리케이션 'e조선경제' 제작

조선일보 경제부·조선비즈 등과 함께 경제전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조선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Invest chosun 인베스트'라는 메뉴를 통해 주요 기사를 제공합니다.

(4) 조선일보 내 독자섹션 지면 발간

매월 조선일보 내 독자섹션를 'Invest'이라는 브랜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5) 증권거래소 운영 '코스콤'에 경제 데이터 제공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증권금융 인프라 회사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에 공식적으로 자본시장 관련 통계 데이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최근 발간 내역

·2016년 08월

·2016년 09월

·2016년 10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01월

·2017년 02월

·2017년 03월

6 윤리 강령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철저한 사실 확인 ▲균형 있는 시각유지 ▲심층분석을 기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단 한 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기사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